

“V12’ 감동 이어간다… 올해도 우승 목표 달성할 것”



이범호 KIA 감독, KBO 미디어데이서 당찬 출사표 개막전 선발 제임스 네일…슈퍼스타 김도영 등 기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목표로 달리겠습니다.”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20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 미디어데이’에서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이 감독은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팬분들을 기쁘게 해드렸다”면서 “올해 역시 그 성적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감독은 오는 2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다이노스와의 개막전에 나설 선발투수로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을 지목했다.

네일은 지난해 KIA에 합류해 에이스 역할을 소화했다. 26경기에서 149.1이닝 12승 5패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하며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주무기인 스리퍼를 앞세워 평균자책점 부문 1위를 차지했던 네일은 다승왕까지 노릴 수 있었지만, 시즌 후반 부상이 아쉬웠다. 하지만 한국시리즈에서 복귀해 1차전 5이닝 4피안타 6탈삼진 1실점으로 후투

했다. 그는 4차전에서 5.2이닝 6피안타 7탈삼진 2실점으로 패투하며 승리를 따냈다.

개막전 상대인 NC는 로건 엘런을 개막전 선발로 지명했다.

올 시즌 KIA는 10개 구단 중 절대 1강으로 꼽힌다. 지난해 유일 팀 타율 3할대를 기록한 막강 타선이 자리잡고 있고, 마운드 역시 리그 최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감독은 “절대 1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경기를 치르면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경험을 많이 했다”면서도 “올 시즌 치근치근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올 시즌 주목할만한 선수로 ‘슈퍼스타’ 김도영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유니폼 판매 1등인 김도영 선수를 팬분들이 많이 보러와 주셨으면 좋겠다. 올해 역시 유니폼을 많이 팔아서 팀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KIA는 올 시즌 우승 공약으로 화려한 팬페스티벌 행사를 예고했다.

이날 이 감독과 함께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김도영은 “우승 공약을 신중하게 생각할 정도로 올 시

즌 우승을 생각하며 운동하고 있다”면서 “우승하게 된다면 대학교 축제처럼 다양한 부스를 만들어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하는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0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참석했으며, 210명의 팬이 자리를 함께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팬들은 선수들을 상대로 사인을 받는 시간이 마련됐다. 팬 페스트 존에서는 기념 촬영과 응원팀 우승 시 공약 작성, 스케치북 응원 문구 만들기 등의 이벤트가 진행됐다. 10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은 팬들이 앉은 좌석 사이를 지나 무대로 입장하는 등 개막을 앞두고 팬들과 스킨십에 적극 나섰다.

송하중 기자 hajong2@wangnam.co.kr

3월 KIA 경기 일정

일/요일	광주	대전
22/토	KIA-NC	
23/일	KIA-NC	
25/화	KIA-키움	
26/수	KIA-키움	
27/목	KIA-키움	
28/금		KIA-한화
29/토		KIA-한화
30/일		KIA-한화

광주FC, 5경기 연속 무패 행진 잇는다

내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서 포항전 1승 3무 승점 6 리그 8위…오후성·박인혁 등 기대

프로축구 광주FC가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나선다.

광주FC는 22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4라운드 순연 홈 경기를 치른다.

당초 9일로 예정됐던 포항과의 일전은 광주와 비셀 고베의 2024-2025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 일정으로 22일로 연기됐다. 이에 광주는 K리그 팀 가운데 유일하게 A매치 휴식이 중단 홈 경기를 치른다.

현재 광주는 시즌 초반 4경기에서 1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리그 내에서 패배가 없는 구단은 광주가 유일하다. 더욱이 ACLE를 병행하며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새롭게 합류한 신입생, 영입생들이 호흡을 잘 맞춰가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조직력을 엿볼 수 있는 명확한 지표는 실점이다. 부상과 컨디션 난조 등의 이유로 변준수, 안영규, 민상기, 조성권 등 다양한 선수들이 센터백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리그에서 단 3실점만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10개 구단보다 한 경기 더 차를 점을 감안해야하지만, 울산HD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게다가 광주의 수비진은 3월 이후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고베, 김현상무 등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구단을 상대로 무실점으로 걸어 잡는 데 성공했다.

광주는 A매치 차출로 인해 아사시가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지만, 잠재력을 뽐내고 있는 오후성과 고베전 골 맛을 본 박정인을 필두로 박인혁, 헤이스 등이 날카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K리그1 경기에서 광주FC 헤이스가 드리블을 하고 있는 모습.

이번 경기 상대인 포항은 리그를 대표하는 전동의 강호지만, 시즌 초반 출발이 좋지 않다. 아직 2무 2패를 기록하며 승리가 없다. 득점과 실점 모두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처지며 흔들리고 있다. 광주는 이번 기회를 살려 홈에서 승점 3점을 얻겠다 각오다.

한편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구단 SNS를 통해 진행 중인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팬 20명에게 강화수, 조성권 친필 사인 포스터를 증정한다.

경기 전에는 대형 유니폼 에어별분과 뱃꽃 나무 조형물을 활용한 포토존을 운영한다. 또 가변 & 응원구구 꾸미기 체험부스를 통해 자신만의

응원 도구를 만든 후 인증샷 업로드 시, 추첨을 통해 ACLE 16강 득점 선수 사인 유니폼과 BBQ 황금 올리브 치킨 세트 등을 제공한다.

하프타임에는 전광판 이벤트로 ‘봄격적으로 찾아와~’를 운영해 광주팬클럽과 자유이용권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네이버스포츠 직판 헬린이 이벤트를 통해 광주FC 선수단 친필사인 유니폼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외에 아시아 최대 축구 흥보 부스 운영 및 선수단 사인회를 진행하며 선착순 1000명에게 광주FC 홍보대사 ‘노라조’ 조빈이 후원하는 응원 물품(갈매기), 유한양행 당규락 혈당유니온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

달라진 KBO리그…피치클락·ABS 조정 ‘새규정’

경기 지연 시간 단축 목표…연장전 이닝 축소 적용

2025시즌 시작을 앞둔 KBO리그가 다변화에 나선다. 경기 속도를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적용된다.

먼저 피치클락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된다. 이미 지난해 KBO리그에서 시범 운영했고, 퓨처스리그에서는 정식으로 도입하며 검증해 마쳤다.

투수는 주자가 없을 때 20초, 주자가 있을 때 25초 안에 투구해야 한다. 타자는 8초 안에 타석 준비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투수는 자동 볼, 타자는 자동 스트라이크로 판정된다.

피치클락 제도 도입은 불필요한 경기 지연 시간 단축이 가장 큰 목적이다.

연장전도 변화된다. 피치클락 시행과 함께 정규 시즌 12회까지 진행되던 연장전은 11회까지 축소 운영된다.

ABS(자동불판정시스템) 스트라이크존 또한 변경됐다.

지난 시즌 타자의 신장에 비례해 상당 56.35%, 하단 27.64%의 높이로 적용했던 것을 올 시즌부터는 상당 하단 모두 0.6%씩 하향 조정해 상당 55.75%, 하단 27.04%를 적용한다. 존의 중간면 및 끝면, 좌우 폭 등 스트라이크 존 자체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는다.

주자의 1루 주루도 변화를 맞았다. 기존 1루 베이스 3피트 라인 안쪽으로 뛰어와 했던 것을 1루

페어지역 안쪽의 홈 부분까지 달릴 수 있게 적용했다. 단 내야 잔디를 밟고 뛰는 경우 야수 플레이를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아웃 처리된다. KBO는 이를 위해 비 시즌 동안 모든 구장의 1루 파울라인 안쪽의 너비가 45.72cm~60.96cm 범위 내에서 맞춰지도록 조정했다.

비디오 대응 대상 플레이 확대된다. 내·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또는 타자의 파울·렛 스윙 판독 시 타석 안쪽뿐만 아니라 타석 바깥에서 타자주자의 주루 과정에서 몸 또는 경기 용구에 공을 맞았는지 여부도 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혹서기(7~8월) 경기 개시시간은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됐다. 또 6월부터 더블헤더 편성을 하지 않는다. 9월 이후에도 무더위가 계속되면 경기 시간 조정을 논의한다.

KBO 한국시리즈 홈 경기 편성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KBO 정규시즌 1위팀의 홈 구장에서 1·2·5·6·7차전을, 플레이오프 승리팀의 홈 구장에서 3·4차전을 치렀다. 올해부터는 정규시즌 1위 팀 홈 구장에서 1·2·6·7차전을, 플레이오프 승리 팀 홈 구장에서 3·4·5차전을 개최한다.

KBO 기념상 감독상 부문 신설된다. 정규시즌 기준으로 500승부터 이후 100승 단위로 승수를 쌓은 감독에게 기념상을 수여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는 20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2025 광주시체육회 우수선수 발대식’을 개최했다.

광주시체육회 ‘2025 우수선수 발대식’ 개최

김자인 등 100명 참석…“광주체육 빛내길”

광주시체육회 소속 우수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각종 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시체육회는 20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2025 광주시체육회 우수선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갑수 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이장호 전문체육위원장, 김제안 경기력향상위원장 등 임원과 김자인·신은철(이상 산악), 진해주(당구) 등 우수선수 100여 명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다.

신은철과 양지원(핀수영)은 이날 선수 대표로 선서했고 선수복도 전달받았다. 또 선수들의 의지

를 담은 사인판을 전달했다. 발대식 후에는 스포츠 윤리센터 및 한국도광광역시위원회에서 진행한 스포츠인권 및 도광 교육도 실시했다.

시체육회는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우수선수로서 자긍심을 갖고 훈련에 임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부상에도 유의해 올 한해 광주체육을 빛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탁구 국가대표팀, 월드테이블테니스 대회 출격

오늘 선수촌 훈련 마감…신유빈, 유한나와 여자복식조로 첫 출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한 달 가까이 담금질 해왔던 탁구 대표팀이 정예 선수들을 월드테이블테니스(WTT) 대회에 처음 파견한다.

오상은 감독과 석은미 감독이 남미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후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를 파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자팀은 안재현, 임종욱(이상 한국거래소), 조대성(삼성생명), 오준성(수성고등학교 방송통신고), 여자팀은 신유빈, 이은혜, 박가현(이상 대한항공), 김나영, 유한나(이상 포스코인터내셔널)가 출전한다.

남자 간판 장우진(세아)도 출전 자격을 얻었으나 지난주 참가했던 WTT 챔피언스 총칭 대회 때

발뒤꿈치를 다쳐 불참한다.

대표팀은 세계선수권을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첸나이 대회에서 우승 경쟁을 벌인다.

이번 대회는 세계선수권처럼 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복식 경기를 치른다. 중국은 남녀 월드컵(4월 14~20일·마카오)에 집중하기 위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파견하지 않는다.

여자 에이스 신유빈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했던 ‘황금 콤비’ 전지희(은퇴)가 국가대표를 반납한 바람에 왼손 셰이크렌드 유한나(포스코인터내셔널)와 처음 호흡을 맞춰 복식에 출전한다.

석은미 여자팀 감독은 “신유빈 선수는 파워를 강화하는 쪽으로 훈련을 집중해왔다”면서 “유한나 선수와 처음 호흡을 맞춰 출전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복식조 구성의 완성도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